



입맛 돌아온 가을... 간식 줄이고 운동시켜야



천고견비(天高犬肥)

사료에 기능성 간식까지 먹거리 가득 비만으로 이어지며 각종 질환에 노출 계획한 만큼만 주고 운동은 적당하게 추석 차례음식 접근 못하도록 차단도

요즘 밤날씨가 꽤 서늘해졌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듯 하다. 드디어 우리의 사랑스런 멧돼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은 천고견비(天高犬肥)의 계절이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까지 더 한다면 그동안 찌는 듯한 더위에 모든 입맛을 잃었던 우리 멧돼지들의 입맛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본다면 무더운 여름철 강아지들은 대체로 약 20%정도 식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다시 식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입맛을 잃었던 강아지가 다시 식욕이 올라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다. 이제 비만

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비만은 사람이든 강아지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기존 질환이 있는 강아지라면 비만으로 인해 더 악화되기도 한다. 뚱뚱한 강아지는 분명히 정상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진 강아지만큼 삶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비만한 강아지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활동은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체중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인 사료 이외에 시중엔 맛있고 몸에 좋은 기능성 간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이 맛있는 간식을 내 강아지에게 주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어렵다. 물론 먹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내분비계 등의 질환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사실 비만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비만이 장차 자신의 강아지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자기를 보며 간식을 기다리는 멧돼지의 눈망울을 보면 그 요구를 외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소연을 한다. 시쳇말로 '먹다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많은 보호자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한다. 하지만 틀렸다. '때깔 곱지 않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각종 혈관유래질환, 피부질환, 관절질환, 소화기질환, 심장질환 등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만의 주범은 간식이다. 간식을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간식을 얼마나 급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간식을 줄때마다 다른 그릇에 갈

은 양만큼 덜어놓자.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그릇에는 내가 강아지에게 하루 동안 준 간식의 양만큼 들어 있을 것이다. 그 양을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양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 하루에 급여할 간식을 그릇에 담고 계획한 양만큼만 주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보상차원에서 간식 외에는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운동을 해야 한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점진적인 운동량의 증가는 강아지에게나 보호자에게 이로운데 준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는 세심해야 한다. 살찐 비정상적인 강아지가 갑작스레 많이 증가한 운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운동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절이나 심장 등에 무리를 주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운동방법과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달 끝자락엔 추석이다. 대개 추석 즈음에는 차례음식을 훔쳐(?)먹은 멧돼지들이 탈이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들이 멧돼지의 소란스러움에 관리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 맛있는 음식냄새가 멧돼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고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하지만 차례음식의 몇 가지는 강아지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차례음식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자.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관

에스프레소 같은 남자, 라이언 고슬링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 간식을 달라고 쳐다보는 반려동물의 애절한 눈빛은 귀엽기도 애뜻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어린 아이의 함박 웃음 또한 단번에 보는 이들을 무장해제 시킨다. 스크린에서도 그런 무장해제의 순간들을 여러번 만나게 된다. 각박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들이 스크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수없이 많은 무비스타들 중에서도 라이언 고슬링은 특별한 존재다. 마치 달콤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이 강렬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겸비한 그는 잊기 힘든 눈빛으로 먼저 떠오르는 배우다. 1980년 생으로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청년의 몸과 소년의 눈동자를 간직한 라이언 고슬링. 국내에서는 로맨스 명작으로 꼽히는 2004년작 '노트북'을 통해 주목을 받은 후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2016년작 '라라랜드'를 통해 명실공히 월드 스타로 등극했다. 184cm의 큰 키와 근육질의 몸매, 무엇보다 우수에 젖은 눈동자로 여심을 뒤흔드는 라이언 고슬링의 매력은 로맨스 영화에서 빛을 발해왔다. 상처받은 남자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배우 라이언 고슬링의 눈빛을 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의 눈동자는 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달콤하고 짭짤한 눈빛은 로맨스 장르가 아닌 작품에서도 필살기로 기능하는 배우 라이언 고슬링의 무기가 된다.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진하고 독한 멜로 드라마를 함께 했던 데릭 시엔프렌스 감독의 영화 '플레이스 비온 더 더 파인즈'에서 라이언 고슬링은 전곡을 돌아다니며 모터사이클 스타트맨으로 일하는 남자 루크를 연기한다. 1년 전 불장난처럼 하룻밤을 보냈던 로미나가 자신이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루크는 그녀와 자신의 아이 제이슨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한다.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모터



라이언 고슬링

사이클 곡예를 하는 거친 남자 루크가 1년 만에 로미나를 다시 만나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착을 결심했을 때 루크의 그 복잡다단하지만 확고한 눈빛은 라이언 고슬링의 진가를 또 한 번 느끼게 한다. 최근 재개봉한 영화 '드라이브' 역시 이 연장선상이다. 이번엔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다. 스피드를 목숨처럼 알고 살던 남자에게 어느 날 지켜주고 싶은 여자가 나타나고 위험천만한 순간을 순정을 위한 스피드로 돌진하는 드라이브가 라이언 고슬링의 몫이다. 말은 적고 몸은 단단하고 눈빛은 달콤한 상처 입은 남자 전문인 라이언 고슬링에게 '드라이브'는 맞춤형 재킷같은 영화다. '드라이브'는 여성 관객은 물론 남성 관객에게도 짜릿한 속도의 쾌감과 순애보의 씁쓸함만 달콤함을 맛보게 하며 배우 라이언 고슬링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된 바 있다.

이렇듯 액션과 멜로 등 장르를 넘나들며 배우로서의 매력을 뽐낸 라이언 고슬링은 2018년 영화 '퍼스트 맨' 이후 신작 소식이 없어서 많은 팬들을 안타게 했는데 최근 반갑게도 신작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유니버설의 다크 유니버스를 이어갈 '울프맨'과 넷플릭스 영화 '그레이맨'이 라이언 고슬링이 합류할 신작들이다. 두 편 모두 큰 규모의 상업 영화로 아트무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라이언 고슬링이 블록버스터에서는 어떤 매력을 뽐낼지 기대가 된다.

거짓말처럼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비터스위트.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특별한 풍미를 지닌, 다크 초콜릿같은 눈빛의 배우 라이언 고슬링을 꺼낼때다.

<신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도민의 저력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갑시다.

하나 된 도민의 힘이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